

## 전남대병원 응급실·수술실 '셋다운' 되나

의정 갈등 응급의학과·마취과 등 전임의 35명 중 15명 재계약 안해 광주·전남 3월부터 응급실 뺑뺑이 주 1일 응급실 폐쇄 최악 상황 우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이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남대병원 필수진료과인 응급의학과와 마취과 전임의(필로)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3월 초 응급실과 수술실 일부가 '셋다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1년 동안 근무하던 35명의 전임의 가운데 근로계약 계약갱신일(지난 6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전임의는 총 15명에 달한다.

문제는 새로운 전임의 모집(총 34명)에 5명이 지원했지만, 현장을 떠나는 의료진이 더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의정갈등 1년간 현장을 지킨 전임의 재계약 만료일이 이달 말이라는 점에서 3월 의료 붕괴설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력 이탈로 가장 큰 타격을 예상되는 곳은 수술실과 응급실이다.

재계약을 포기한 15명 중 마취과 전임의와 응급의학과 전임의가 각 3명씩에 달한다는 점에서, 소화기 내과와 순환기 내과 등의 전임의 등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대병원에서는 수술은 마취과 의사 8명이 각 과마다 시간을 배당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하



의료대란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지만 전임의 3명이 나가게 되면 각 과마다 수술 횟수도 조정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응급수술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전망한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응급실이 붕

괴직전이라고 진단한다.

그동안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광주-전남 응급의료를 담당하면서 버텼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기간 전국 응급실 뺑뺑이 현황을 보면

전국 응급실 1차 재이송 96건 중 광주는 0건이고 전남은 2건에 그쳤다. 사실상 이들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공백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치솟은 금값에 골드바 사재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 금값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전남에서도 금을 구매하는 인파들이 몰리면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늘 금을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지불해도 2주 뒤에나 실물을 손에 넣을 정도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0g 골드바의 g당 금값은 15만7100원으로 거래소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0일 15만원을 넘어서고 다음날인 11일 15만6230원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상승 마감했다.

금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골드바 판매액은 8억 7773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2억8611만원)보다 3.0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도 비슷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골드바 판매액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총 242억 701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월 1~11일)의 79억 6326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금을 찾는 시민이 몰리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1일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이른 시일 내 판매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지역 금방에도 금을 구매하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광주점 기장선 대표는 "금값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금을 구매하는 손님이 3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며 "오늘 금을 구매해도 2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김 작황 호조에...물김 5296 t 바다에 버렸다

진도·고흥 등 물김 생산량 급증 산지 가격 유지 위해 수급 안정화

산지 물김 수천 t 이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김 작황 호조에 가공공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생산량이 급증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 수산 당국은 적정 산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에 공을 쏟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만 5296 t 으로, 전국에서 폐기된 물김(5989 t)의 88.4%에 달했다.

진도가 2285 t의 산지 물김을 폐기해 가장 많았고 고흥(1733 t), 해남(800 t), 완도(240 t), 신안(158 t), 장흥(80 t) 순이었다.

전남도 등 수산 당국은 작년보다 좋은 작황으로 물김 생산량이 265개 전남지역 김 가공업체의 수요를 웃돌아 경매장에서 위판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물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지난 6일 기준 25만 2859 t 으로 전년 같은 기간(21만 6496 t) 대비 17%가 증가했다.

김 작황이 좋은데다, 지난해 국내 물김·마른 김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김 양식장을 새롭게 조성한 점도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

다. 해수부는 그동안 신규 김 양식장 면허를 제한해 왔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김 선호도 상승으로 인한 수출량 증가, 일본의 김 홍작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물김·마른 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는데 따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700ha(1ha는 1만㎡)의 신규 김 양식장 조성을 허가한 바 있다.

전남의 경우 기존 양식장 재배치로 인한 김 양식 면허 승인을 빼면 신규 양식장 허가는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식장 시설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존 양식장에 더해 전남 바다에 새롭게 조성되는 양식장 면적(1658ha)만 축구장 2335개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수요를 노린 불법 무허가 양식장도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물김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은 급락했다. 1월 위판 가격이 포대(120kg)당 8만 90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위판 가격(19만 8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졌다.

다만, 2월 들어 수급이 안정되고 있어 포대(120kg)당 16만 3000원에 위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물김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 등을 들어 물김 채취량 자율 감축을 통한 생산량 조정, 마른김 비축 시범 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에 ▲위판 할당제 도입 ▲대규모 보관장과 확충을 통한 비축사업 추진 등을 건의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KIA 캠프 - 김도영 불러 온 ML 스카우터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영월 별마로천문대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 명작수

명작수  
RED GINSENG EXTRACT AMPOULE  
20g  
바이탈뷰티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